

『미술자료』 100호의 발자취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 『미술자료美術資料』가 2021년 12월 제100호가 발간되었다. 『미술자료』는 1960년 8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재 연구를 활성화’ 한다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술자료』 제100호 발간을 기념하며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I. 『미술자료』 발간의 역사

1. 발간 현황

『미술자료』는 창간호부터 제100호에 이르기까지 총 484편에 달하는 논고를 소개하였다(표 1 참조). 『미술자료』는 창간호부터 제8호(1963)까지 연2회, 제9호(1964)부터 제19호(1976)까지 연1회, 제20호(1977)부터 제67호(2001)까지 연2회, 제68호(2002)부터 제75호(2006)까지 연1~2회 발간하였다.¹ 『미술자료』는 2007년 〈미술자료 발간규정〉 제정으로 2011년까지 연 1회 발간하였으며, 2012년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연2회(6월 20일, 12월 20일) 발간하고 있다.²

표 1. 〈미술자료 수록 논고 현황(1960~2021)〉

시기 논고 수	1960~1969 (1~13호)	1970~1979 (14~25호)	1980~1989 (26~44호)	1990~1999 (45~63호)	2000~2009 (64~78호)	2010~2019 (79~96호)	2020~현재 (97~100호)	합계(편)
수록 논고	78	48	68	87	67	115	21	484

2. 발간 규정

『미술자료』는 1960년 국립박물관 고고과考古課에서 창간하였다. 1961년 국립박물관의 직제 변경으로 미술과美術課가 신설되면서, 『미술자료』 발간은 제5호(1962)부터 미술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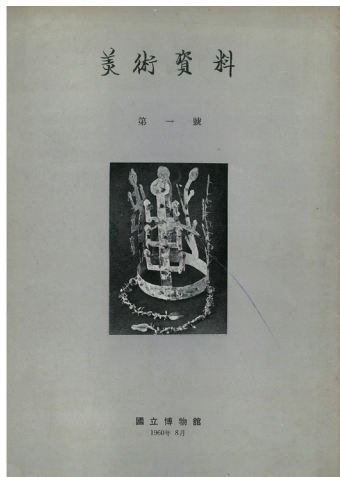
1 『미술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청사를 이전한 1972년(덕수궁→경복궁)과 1986년(경복궁→중앙청) 발간되지 않았으며, 용산 이전 추진 중이던 2004년과 2005년에는 합집(제70·71호, 제72·73호)으로 발간되었다.

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예규편람」, 제116호(2007. 11. 28.) 및 제154호(2012. 3. 20.) 제3조(발행횟수) 참조.

르고 있다.³ 창간호의 투고 규정에 따르면 『미술자료』 논고는 ‘고고·미술 관계의 연구·소개·기행’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13호(1969)부터 ‘미술 관계로서 연구·조사 자료’로 변경되면서 미술사학 분야 전문 학술지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다. 현재는 2007년 제정된 『발간규정』에 따라 ‘한국·동양 미술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술사학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연구윤리〉를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⁴

3. 편집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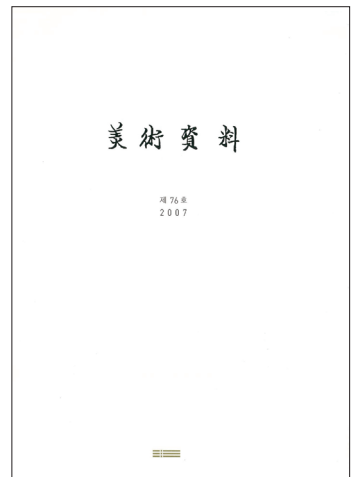
『미술자료』는 발간 초기 논문과 잡보로 구성되었으나 제6호(1962)부터 자료 항목이 추가되었다. 자료는 『미술자료』만의 특징으로 미술사학 관련 자료를 소개하거나 기존의 연구를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6호부터 제100호까지 게재된 자료의 수는 100편에 달한다. 편집 체재의 경우 창간호부터 제28호(1981)까지 글자는 세로쓰기 제본은 우철右綴(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방식)이었으나, 제29호(1981)부터 가로쓰기와 좌철을 적용하고 있다. 『미술자료』의 표지는 제16호(1973)와 제76호(2007)를 기준으로 두 차례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 1. 『미술자료』 창간호 표지



도 2. 『미술자료』 두 번째 표지



도 3. 『미술자료』 세 번째 표지

3 「국립박물관직제」(시행 1961. 1. 16.)

(제5조) 국립박물관에 관리과, 고고과와 미술과를 둔다.

(제8조) 미술과는 미술과 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관, 진열, 고정, 평가, 감정, 제도, 촬영, 모사, 모조, 수리, 복원 및 조사연구와 이에 관한 계몽선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예규편람」, 제116호(2007. 11. 28.) 제6조(연구윤리) 참조.

4. 미술사학 전문 학술지로서의 성장

국립중앙박물관은 『미술자료』의 연구적, 학문적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주관하는 학술지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미술자료』는 2008년과 2016년 ‘전문 자료를 발굴하고 다양한 연구 시각과 주제를 다루어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많은 독자들이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 등으로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되었다. 뒤이어 2018년에는 ‘학술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연구자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는 개방적인 운영, 미개척 연구 분야의 발전기여, 학술지 발간 규정의 보완을 통한 논문의 질적 향상’ 등 노력을 인정받아 ‘등재학술지’로 상향 조정되어 미술사학 전문 학술지로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II. 『미술자료』의 학술적 성과

1. 『미술자료』의 시기별 연구 동향

1960~70년대는 고고考古·미술美術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연구를 수록하였다. 김재원(1909~1990) 전 국립박물관장은 『미술자료』의 첫 논고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소개하여 학술지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당시에는 쉽게 방문할 수 없었던 국외 유적 답사기도 게재하였다.⁵ 또한 김원룡(1922~1993), 진홍섭(1918~2010), 최순우(1916~1984), 황수영(1918~2011) 등은 전국에서 발굴·조사된 여러 유물들을 소개하였다.⁶

1980~90년대는 서화書畵 분야의 논고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회화·화가에 대한 여러 분석이 이루어졌고⁷,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외 학자들의 연구도 다수 게재된 점이 주목된다.⁸ 2000년대부터는 불교미술·서화·공예 분야의 연구

5 김재원, 「巴里의 新羅寶冠」, 제1호(1960), pp.1~4; ____, 「양콜 타지 마할 아잔타 紀行」, 제3호(1961), pp.16~21; ____, 「보로보두루 紀行」, 제7호(1963), pp.18~22; ____, 「티갈」Tikal 紀行」, 제10호(1965), pp.19~21.

6 김원룡, 「水石里 先史時代 聚落住居址 調査報告」, 제11호(1966), pp.1~16; 진홍섭, 「慶州 皇母里 古墳 發掘 調査 略報告」, 제2호(1960) pp.7~13; 최순우, 「溫寧君墓 出土의 粉靑沙器」, 제6호(1962), pp.21~24; 황수영, 「奉化 西洞里 東三層 石塔의 舍利具」, 제7호(1963), pp.5~7; ____, 「서울出土 金銅觀音菩薩立像」, 제12호(1968), pp.1~3.

7 강관식, 「觀我齋 趙榮祐 畫學考(上)」, 제44호(1989), pp.114~149; ____, 「觀我齋 趙榮祐 畫學考(下)」, 제45호(1990), pp.1~60; 오주석, 「李寅文筆 〈江山無盡圖〉의 研究(中)」, 제51호(1993), pp.55~92, ____, 「李寅文筆 〈江山無盡圖〉의 研究(下)」, 제52호(1993), pp.38~97; 이원복, 「辛亥生甲會之圖」, 제39호(1987), pp.68~72.

8 西田宏子, 「高麗鐵繪靑磁에 대한 考察-鐵繪靑磁의 盤을 중심으로-」, 제29호(1981), pp.35~42; 荒井幸雄·김영원 역, 南宋官窯와 哥窯의 諸問題, 제43호(1989), pp.70~98; 梅村 坦, 민병훈 역, 「國立中央博物館藏 베제크릭壁畫 위구르銘文 試釋」, 제55호(1995), pp.119~155.

성과를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개최 특별전 및 학술대회 연구 성과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⁹

2. 『미술자료』의 주제별 연구 동향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010년 『미술자료』 발간 5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수록된 전체 논고를 정리·수록하였다.¹⁰ 당시에는 논고를 서화, 조각·석조, 공예, 건축, 고고, 종합·기타 등 여섯 주제로 분류하였다.¹¹ 이 글에서는 2010년의 분류 방법을 따르되 불교 관련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불교미술’ 항목을 추가하여, 제1호부터 제100호까지 논고를 불교미술·서화·공예·고고학·보존과학·건축·유관분야 등 일곱 주제로 분류하였다(표 2 참조).¹²

〈표 2〉에 따르면 『미술자료』 논고 가운데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불교미술, 서화, 공예 등으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미술은 금속과 목조 등 불교 공예품에 대한 논고(42편), 부도와 석탑 등 석조물 양식과 특징에 대한 논고(32편), 복합적인 주제를 다룬 논고(45편)¹³,

표 2. 〈『미술자료』 논고의 시기/주제별 통계〉

시기 주제	1960~1969 (1~13호)	1970~1979 (14~25호)	1980~1989 (26~44호)	1990~1999 (45~63호)	2000~2009 (64~78호)	2010~2019 (79~96호)	2020~현재 (97~100호)	합계
불교미술	24	24	24	31	30	26	13	172
서 화	8	11	25	33	23	40	5	145
공 예	24	6	11	13	11	27	2	94
고 고 학	13	3	4	6	1	—	—	27
보존과학	2	2	3	3	1	5	—	16
건 축	2	1	—	—	1	—	—	4
유관분야	5	1	1	1	—	17	1	26
합 계	78	48	68	87	67	115	21	484

9 스테이지 피어슨[Stacey Pierson], 「조형, 색, 장식으로 본 宋·元代남북방 도자의 상호 관계」, 제83호(2013), pp.17-45; 秦大樹·范佳楠, 「元代 중국 자기의 대외교역 특징 및 新安船 관련 문제」, 제92호(2017), pp.141-186

10 국립중앙박물관은 『미술자료』 발간 50주년을 기념하며 호수별·주제별·영문 목차를 수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미술자료』 79호(2010), pp.164-210 참조.

11 2010년에는 각 주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서화(일반회화·불교회화·서예), 공예(도자공예·금속공예·목조·직물·기타 공예), 『미술자료』 79호(2010), pp.197-200 및 pp.200-205 참조.

12 이 글에서는 각 주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서화(기록·서예·회화), 공예(금속·도자·목조·석조·유리·직물·토기·기타), 불교미술(불교공예·불교회화·불교문헌·불교일반), 유관분야(전시·박물관학·문화재·기행·잡보).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부록 pp.180-196 참조.

13 금속, 목조, 석조 등 복합적인 주제를 언급한 연구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우방, 「金銅三山冠思惟像攷—三國時代彫刻論の一試圖—」, 제22호(1978), pp.1-27; 김리나, 「동아시아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에서 한국 삼국시대 불교조각의 變奏」, 제89호(2016), pp.29-52; 김원룡, 「韓國 佛教彫刻 研究小史—1910~1980—」, 제28호(1981), pp.19-28.

불화佛畵의 양식과 유형을 분석한 논고(23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불교 관련 문헌과 이론에 대한 분석도 수록되어 있어, 불교 전반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서화는 한국 회화(산수·초상·풍속화 등)에 대한 연구(98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대별 회화의 의미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외국 회화 및 외국 미술계를 다룬 논고(29편)를 비롯하여, 기록(금석문·고문서·서예) 분야의 논고(18편)도 살펴볼 수 있다.

공예는 도자에 대한 분석(48편)이 주를 이루며 국내외의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을 비롯하여 외국 도자에 대한 논고도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미술자료』는 보존과학을 비롯하여 문화재·박물관학·전시 기법 등 유관분야의 연구 사례를 꾸준히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경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Ⅲ. 『미술자료』와 국립중앙박물관

1.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소개

『미술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를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미술자료』에 처음 소개된 전시는 1962년 국립박물관이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개최한 〈호랑이 그림 전시회〉(1962.1.1.~1.31.)로, 각계 인사들이 소장한 호랑이 회화를 소개하였다.¹⁴ 1973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미술 각 분야의 명품을 한 자리에 망라하여 선보인 특별전 〈韓國美術二千年〉(1973.4.17.~6.17.)의 전시품 556건의 목록을 수록하였는데¹⁵, 이는 당시 미술사에 대한 이해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87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특별기획전 〈韓國近代繪畵百年(1850-1950)〉(1987.10.20.~12.6.) 연계강연을 수록해 한국 근대회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¹⁶, 이후로도 특별전 관련 전시품의 가치와 의미를 분석한 논고를 여러 편 수록하였다.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소개

『미술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여러 소장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100호에 이르기까지 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한 원고는 170여 편, 소장품의 수는 500여 건에 달했다.¹⁷ 이 글에서는 『미술자료』에 수록된 여러 소장품 가운데 특별한

14 김기창, 「李朝虎圖展 作品小考」, 제4호(1961), pp.1-3.

15 국립중앙박물관, 「韓國美術二千年展 出品目錄」, 제16호(1973), pp.29-46.

16 이동주, 「〈講演抄錄〉「韓國近代繪畵百年展」에 즈음하여—傳統과 變化」, 제40호(1987), pp.10-31.

17 이 글에서 박물관 소장품이란 『미술자료』 게재 원고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한 경우와 근거 자료(도록, 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술자료』에서 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한 최초의 글은 김재원 전 관장의 「國立博物館 所藏 漢代の 靑銅帶鉤」로 〈허리띠 장식〉(본관 303)의 문양과 명문에 대해 분석하였다.¹⁸ 『미술자료』에 여러 차례 소개된 대표적 소장품은 국보 〈금동 반가 사유상〉(본관 2789, 본관 3312)으로, 1960년대부터 최근 까지 과학적 분석, 불상의 양식, 제작 방법 고찰 등 다양한 연구 성과가 수록되었다.¹⁹

『미술자료』에 수록된 박물관 소장품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 16세기 회화인 〈신해생갑합지도辛亥生甲會之圖〉(신수 14145)는 1975년(제18호)과 1987년(제39호) 두 차례 소개되었는데²⁰,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인정받아 199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1997년 게재된 「金正浩 原作 大東輿地圖 木版의 調査」²¹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 목판〉(K 93)의 존재와 사료적 가치를 분석했다. 〈대동여지도 목판〉은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1804~1866 추정)가 제작한 것으로, 고지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인정받아 200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외에도 『미술자료』는 전시에서 공개된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IV. 『미술자료』 제100호를 넘어서

『미술자료』 제1호부터 제100호에 이르는 연구 성과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을 비롯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 누리미디어(DB-pia) · 한국학술정보(KISS) 등 연구플랫폼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중앙도서관 · 국회도서관과 연계하여, 국외 연구 기관에서도 『미술자료』를 구독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외의 관심, 더 나아가 한국학 연구의 발전과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미술자료』가 60여년의 세월 동안 이룩한 성과들이 우리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 미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현 등)를 통해 게재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임이 확인된 경우를 가리킨다. 기탁품 및 게재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소장품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8 김재원, 「國立博物館 所藏 漢代の 靑銅帶鉤」, 제2호(1960), pp.1-2.

19 고종건·함인영, 「放射線 透過法에 依한 古美術品の 調査(-) 〈金銅彌勒菩薩半跏像에 關하여〉」, 제8호(1963), pp.1~5; 강우방, 「金銅三山冠思惟像攷-三國時代彫刻論의 一試圖-」, 제22호(1978), pp.1-27; 민병찬, 「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 방법 연구-국보 78,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중심으로-」, 제89호(2016), pp.19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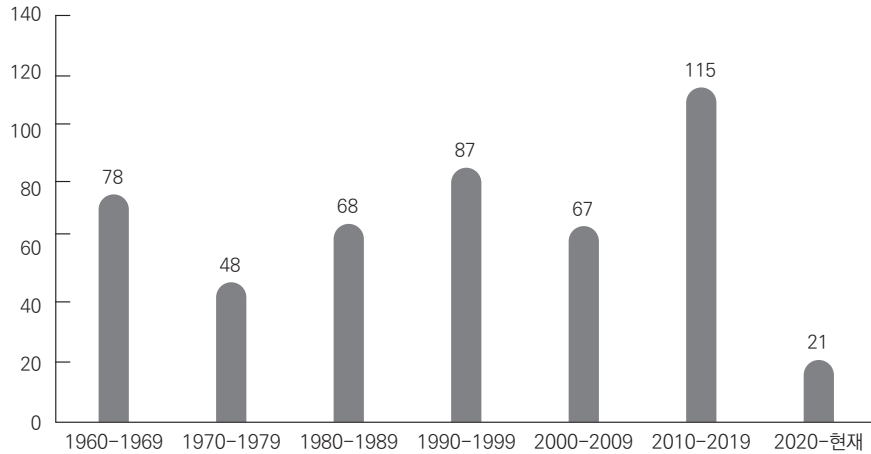
20 안휘준, 「一六世紀中葉의 契會圖를 통해본 朝鮮王朝代 繪畫樣式의 變遷」, 제18호(1975), pp.36~42; 이원복, 「辛亥生甲會之圖」, 제39호(1987), pp.68-72.

21 소재구, 「金正浩 原作 大東輿地圖 木版의 調査」, 제58호(1997), pp.124-136.

통계로 보는 『미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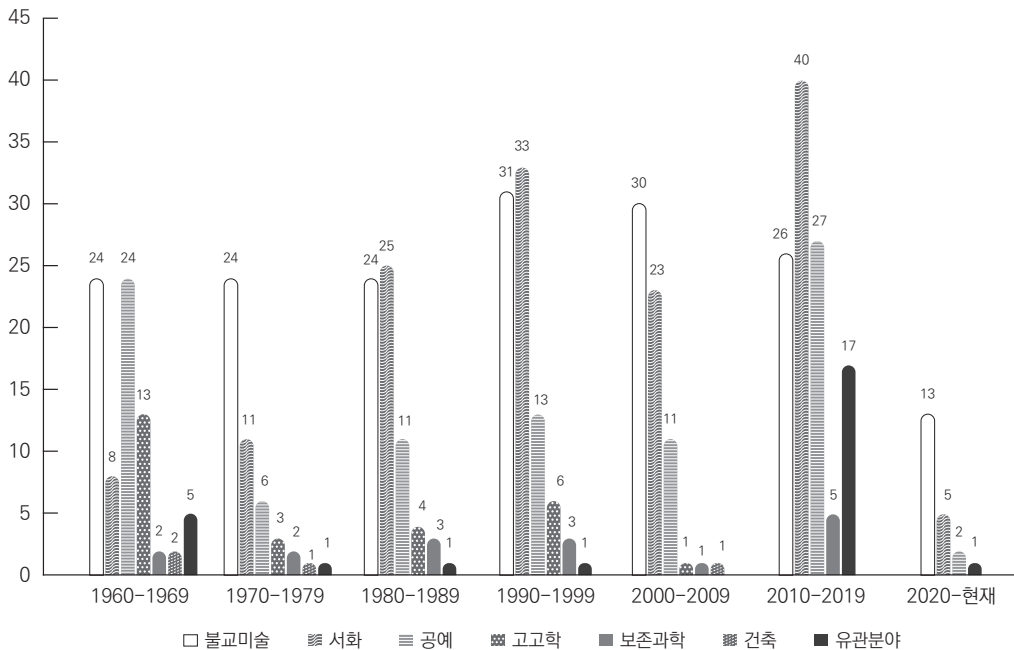
1. 미술자료 연도별 논고 수 통계(1960~2021)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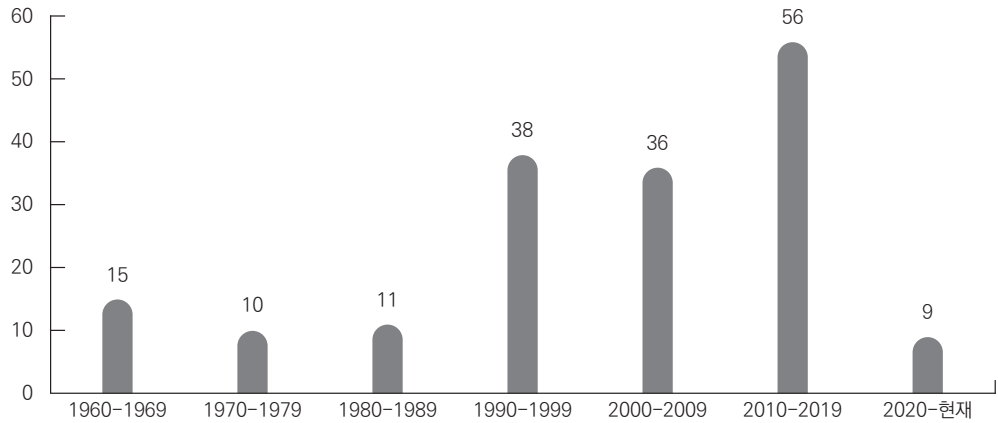
2. 미술자료 주제별 논고 통계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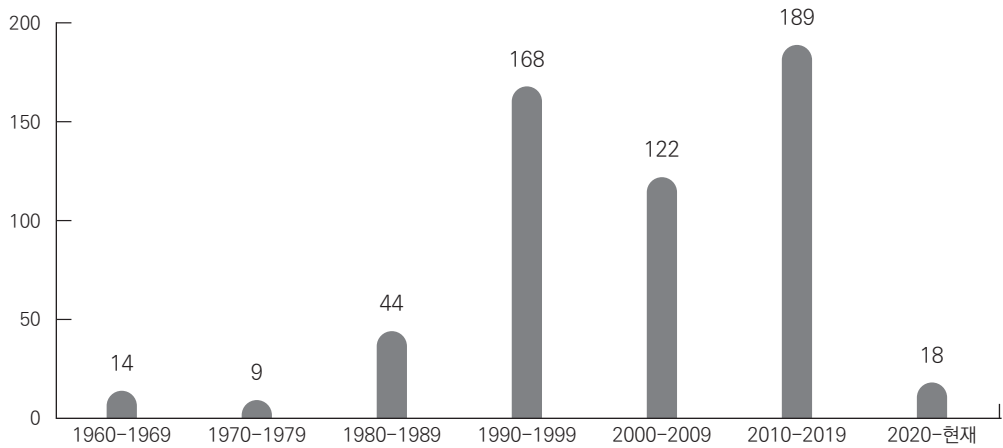
3-(1). 『미술자료』 수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련 논문의 연도별 통계

단위: 편



3-(2). 『미술자료』 수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연도별 통계

단위: 건



시기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9	2020~현재	합계
논고수(편)	15	10	11	38	36	56	9	175
소장품 수(건)	14	11	44	168	122	189	18	564